



글로벌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강화의 영향과 대응

김진억 수석담당역

■ 최근 PwC(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PwC)는 세계적인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회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에 대한 자본규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대한 규제(ComFrame) 등임.¹⁾

■ 글로벌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은 규제의 글로벌화(Globalisation), 정치화(Politicisation),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등임.

● 글로벌화: 보험산업의 경우 은행의 Basel협정과 같은 국제적 건전성 규제를 받은 적이 없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G20 회원국들은 시스템적으로 위험한 글로벌 보험회사에 적용할 자본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G-SII지정²⁾은 일부 대형 보험회사에 국한되지만 각국 감독당국이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D-SII)를 지정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을 채택할 경우, 국제적 건전성 기준은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정치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 구제에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여 재무건전성 이슈는 정치 쟁점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방안이 보험회사 등 비은행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

– 금융위기의 결과로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국가의 정부는 정부가 담당해왔던 사회안전망 유지에 보험회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1) 구체적 내용은 글로벌 이슈(2014. 5. 26),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참조.

2) FSB statement(2013. 7. 18)에 의해 Allianz,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 Generali, Aviva, Axa, MetLife, Ping An, 미국 보험회사인 Prudential Financial과 영국의 Prudential plc 등의 9개사가 지정됨.

- 정부가 보험회사에 대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퇴직 및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험산업 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대립은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에 의해 고조될 수 있음.

● 중앙집권화: 보험감독,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의 공조 강화를 위해 규제기관이 지역적으로 통합되며 지역별 통합 규제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 유럽의 보험 및 기업연금 감독기구(EIOPA), 미국의 연방보험사무국(FIO) 등이 있음.

■ 건전성 규제 강화는 지급여력기준, 보험상품개발, 판매, 자산운용 등 보험업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지급여력기준이 각 보험회사의 개별 리스크속성과 시장 및 체계적 속성을 반영하는 지급여력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임.

- 유동성에 대한 고려가 지급여력기준에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보다 면밀한 리스크 분석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임.

● 사업 계획, 상품설계 및 판매 등 전략적 결정 시 리스크, 자본, 그리고 준법요건(Compliance)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임.

●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측면에서 감독당국은 리스크가 높고 유동성이 낮다고 간주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시 보다 높은 자본적립을 요구하게 될 것임.

- 그림자 금융과 부외거래항목에 대해 보다 보수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험산업 CEO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계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로 보험산업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남.³⁾

● 80% 이상의 보험산업 CEO들은 규제가 운영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시장기회를 제약하고 효과적인 개혁에 방해가 되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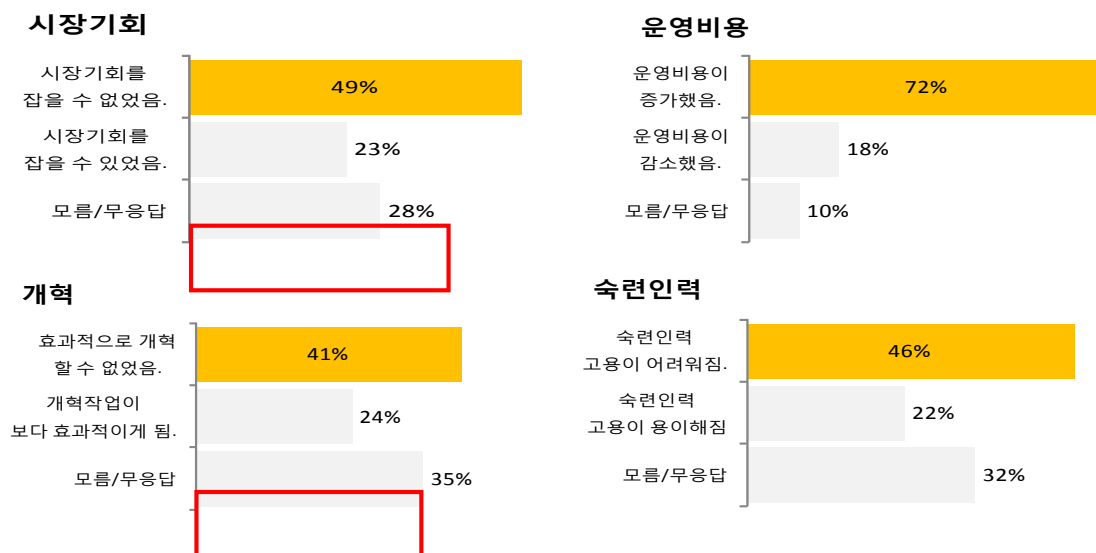
● 하지만 일부 CEO들은 규제 변화가 경쟁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규제 변화는 준법비용 감소와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기회를 주며, 감독요건 충족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경영정보시스템(MIS)을 통해 보험회사의 면밀한 리스크분석과 고객이해를 가능케 해줌.

- 특히 조사된 보험회사 CEO의 약 25%가 감독규제가 실제로 보험회사 개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시장기회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함(〈그림 1〉 참조).

3) 2014년 2월에 발표된 “PwC 제17차 글로벌 CEO 조사” 결과로 한국의 보험회사 CEO도 조사에 참여.

〈그림 1〉 규제영향: 지난 1년간 규제가 보험회사에 미친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주: PwC, 보험회사 CEO 7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규제 변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회사는 건전성 규제 강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 아니라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함.
- 자본효율성 제고: 자본효율성은 원가경쟁력, 가격설정, 수익창출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임.
 -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자본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구조를 검토 및 조정하고 있으며,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인 개혁을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벌고 규제가 본격화 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할 것임.
- 보다 큰 틀에서 검토: 건전성 규제는 소비자보호, 세제, 재무보고,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 개혁들 중 일부임.
 - 이러한 변화들과 지급여력과 상호 연관관계, 전략과 사업결정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함.

■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들도 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PwC 등)